

## 작품예시 01

鳥	+	貝	=	鳥貝
새		조개		어리석다(어)



새와 조개가 서로 물고 놓지 않다가 어부에게 모두 잡히듯이,  
욕심을 부리다 제 3자에게 이익을 넘기는 어리석은 사람.

### 평가

이 학생은 漁父之利의 개념을 잘 알고 있다. 성어에 등장하는 조개(蚌: 조개 방), 도요새(鸕: 도요새 홀)를 쉬운 한자인 새(鳥)와 조개(貝)로 교체하여 합성하였다. 그리고 어부지리의 속뜻인 제 3자의 不勞所得을 뒤집어 불로소득을 제공하는 양자의 어리석음에 초점을 두어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하여 한자와 한자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를 생성했다. 학생의 창의적 성향이 돋보인다. 어리석음을 뜻하는 성어인 숙맥(菽麥)이나 우이독경(牛耳讀經)에 비해 손색이 없다. 센스 있게 음을 우리말의 '어리석다'에서 유추하여 '어'로 처리함으로써 형성의 성향이 없는 순수한 회의문자가 만들어졌다.

## 작품예시 02

井	+	人	=	井人
우물		사람		어리석다(정)



우물 안 개구리처럼 어리석은 사람.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

### 평가

이 학생은 井底之蛙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우물(井)에 들어가 앉아서 하늘을 보면 시야는 당연히 좁아진다. 그 안에 사람(人)을 표기함으로써 우물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다는 井底之蛙 4자의 의미를 한 글자로 깔끔하게 압축하였다. 글자 수를 1자로 줄여 의미를 더욱 명쾌하게 보여주었으니 언어의 경제성에도 적합하다. 다만 음을 井으로 처리함으로써 회의와 더불어 형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회의형성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본 작품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합니다. 자료는 이병주 선생님이 제공한 것이며, 그에대한 평가를 대학서림에서 기록하였습니다.